

홀트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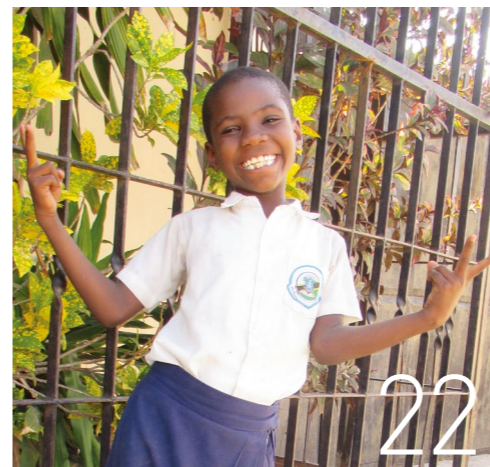
SUMMER 2022 VOL.205





여름 이야기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명예멘토로 활동해온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가 우리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31p 계속)



Contents

- 04 닥터 조, 그녀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 06 아이들의 감각을 깨워주는 '오감톡톡'
- 08 생후 2개월 된 나희의 배에 남은 10cm 수술 자국
- 10 쌍둥이들은 오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12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주세요
- 14 탄자니아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 16 엄마를 위한 향기로운 응원, 맘스커피
- 17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
- 18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갯짓
- 20 설레는 꿈을 향한 도약과 도전!
- 22 두근두근, 결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이들
- 24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합니다
- 26 찰칵! 사진에 담아내는 소중한 추억
- 28 나눔을 통해 이어가는 '선한 대물림'
- 31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북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정익중 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스티브 모리슨 이사(한국입양홍보회 이사) | 장재훈 감사(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오윤숙 감사(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부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글로벌 053)654-0181
 대전글로벌 042)583-4006
 광주글로벌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5호 · 기간 발행일 | 2022년 7월 20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닥터 조, 그녀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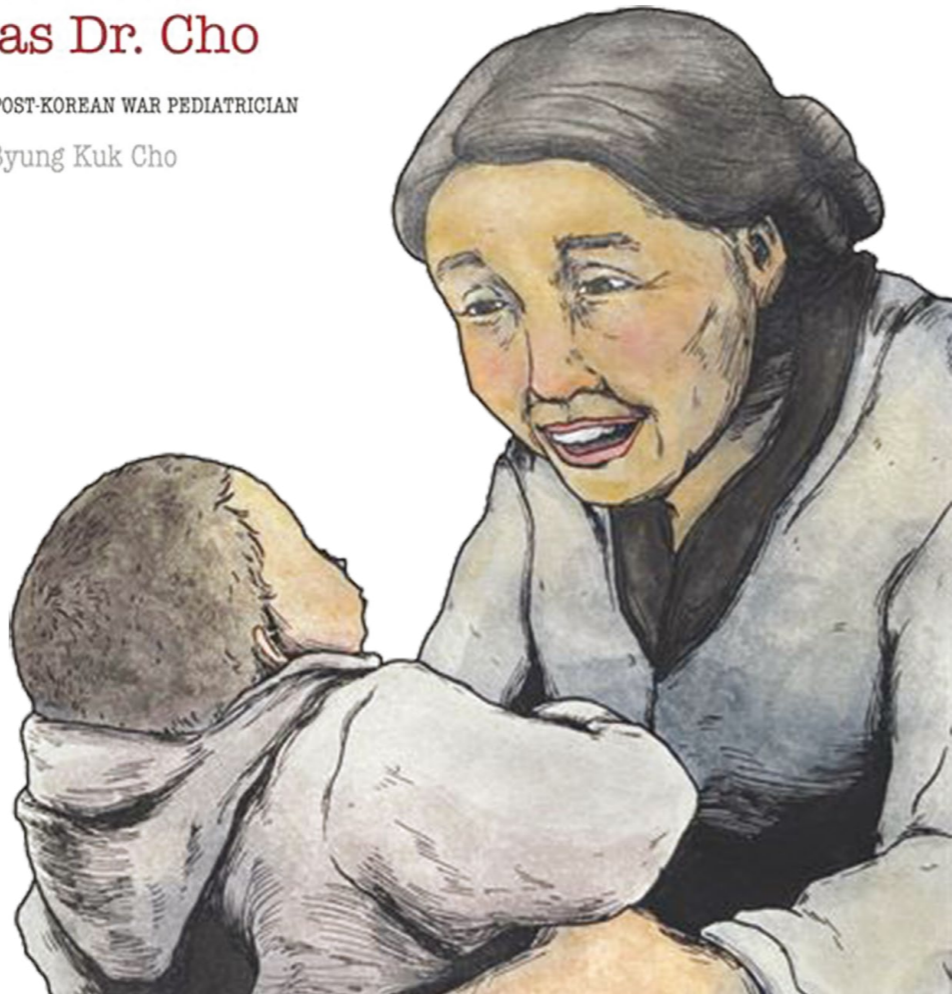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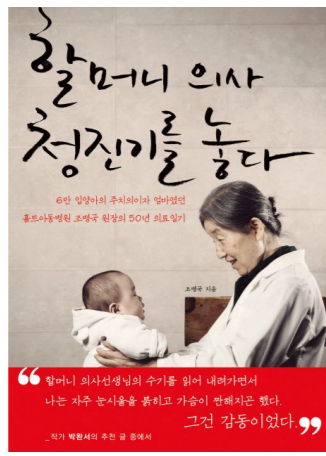
디 어덱티 그룹 조디 길(Jodi Gill) 대표

홀트아동복지회는 위탁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입양대기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의료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하는데요. 조병국 명예원장은 홀트의원에서 50여 년 동안 주치의로 근무하며 6만 명이 넘는 입양대기아동, 중증장애아동을 돌봐주었습니다. 지난 4월, 조병국 원장의 아흔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성인입양인들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바로 2009년 출판된 조병국 원장의 회고록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의 영문판(BEFORE ADOPTION...There was Dr.Cho)을 출간한 것이죠. 영문판을 제작하고 출판기념회를 주최한 미국 비영리 단체 디 어덱티 그룹(The Adoptee Group)의 조디 길(Jodi Gill)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BEFORE ADOPTION... There was Dr. Cho

STORIES AND EXPERIENCES OF A POST-KOREAN WAR PEDIATRICIAN

Written by Dr. Byung Kuk Cho



Dr. Cho! 우리를 발견해 준 은인

조병국 원장은 아동 입양 서류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발견된 아이'라고 기록했는데요.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기 때문이죠. 홀트를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은 조디 길 대표는 조병국 원장과 직원들이 없었다면 자신처럼 아팠던 아동들은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 원장님은 많은 입양인에게 감사한 분이지만, 특히 아기 때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입양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분이예요. 저는 70년대에 매우 아픈 아기로 한 경찰서에 보내졌지만, 지금은 한국 아이들의 유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입양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아흔 번째 생일의 특별한 선물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조병국 원장의 노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조디 길 대표는 회고록을 영문으로 출간하고 싶어했던 조 원장의 바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이 한국 입양인들에 관한 문헌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하지만 영어권 국가로 입양된 대부분 입양인들은 한글로 쓰인 책을 원본 그대로 읽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영문 출판을 위해 그녀는 디 어덱티 그룹 임원들과 기존 번역을 검토, 편집하고, 삽화가를 찾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 왼쪽부터 조디 길 대표, 조병국 원장, 자원봉사자이자 편집자인 사라 살란스키(Sara Santlansky)

받고 출판사로 보내 책을 출시하는 데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출판을 위해 우리는 개인 시간을 할애하고 책 출간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입양인들인 저희가 조 원장님을 위해 직접 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조 원장님에게 더 뜻 깊으실 것 같아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입양인들과 한국, 미국의 언론사에 원장님의 인도주의적 노력을 소개하자 많은 분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디 길 대표는 2015년 조병국 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적인 외모에서 주는 편안함과 위안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서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라고.

“조 원장님은 입양인들을 충족시켜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감정이었죠. 나의 출생 가족을 찾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정도예요. 어떤 입양인은 성공한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슬프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공통점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준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원장님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글 전략기획팀 우은영

아이들의 감각을 깨워주는 ‘오감톡톡’

입양대기아동 통합발달 놀이교육 지원사업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입양대기아동들은 주로 신생아부터 약 30개월의 작고 어린 아기들로,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고 마스크 착용이 힘듭니다. 입양대기아동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탁가정의 실내·외 활동을 제한하고 모든 변화에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동들을 보호해왔는데요. 영유아 시기 월령별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발달수준을 향상해야 하지만 제한된 외부 활동으로 입양대기아동의 발달이 염려되었습니다. 주 양육자인 위탁모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대부분 시간을 혼자 씨름하며 양육해야 했기에 스트레스도 높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정부지침이 점차 완화되어 4월부터 입양대기아동의 통합 발달 놀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아그룹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는 ‘오감톡톡’은 식재료, 교재, 신체, 생태놀이 등 영유아 발달단계별 오감수업을 통하여 월령에 알맞은 통합발달을 돕습니다. 입양대기아동들은 놀이교육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감각적·신체적·정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데요. 무당벌레와 누에고치, 미꾸라지를 보며 휘둥그레한 눈으로 위탁모 뒤에 숨거나, 공놀이하며 까르르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순두부와 미역이 몸에 닿는 게 싫어 인상을 써가며 발가락과 손가락을 있는 힘껏 오므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죠.

‘오감톡톡’을 진행하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위탁모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요. 양육 고민을 해소하고 입양대기아동과 더욱 안정적인 애착과 원활한 교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수업을 들으며 남다른 에너지와 활동량을 뽐어내는 것을 보고 안도감이 들었다.”, “밝게 웃고 힘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인지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 입양대기아동들이 ‘오감톡톡’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글 입양팀 이정미



생후 2개월 된 나희의 배에 남은 10cm 수술 자국

입양대기아동 의료지원 캠페인



나희 엄마는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나희 아빠를 만났고, 누구보다 가족이 그리웠던 엄마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뱃속 아기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로 했지만, 나희가 태어나기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엄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출산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족의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엄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입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준비하는 의료검사서에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생후 2개월, 나희의 배에는 10cm의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황달 증상이 있었던 나희는 고빌리루빈혈증*과 고혈당 소견을 받았고, 간 경화와 간·비장이 커져 복수와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담도 폐쇄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나희는 서혜부 탈장으로 또 한 번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하루 10여 가지의 약을 먹으며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희를 돌봐주는 위탁 가정은 아이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탁 엄마는 힘들어하는 나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자, '담도폐쇄 수술 후 건강관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넣은 이유식도 만들고, 나희가 좋아하는 우유와 과일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이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는 담즙 색소의 농도가 증가한 상태. 빌리루빈이 증가하여 여러 조직에 침착되어 피부나 점막이 노랗게 보이는 증상을 황달이라고 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아동들이 모두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 위해서는 의료상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입양대기아동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대기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나희를 포함한 입양대기아동들의 의료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쌍둥이들은 오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아동 의료지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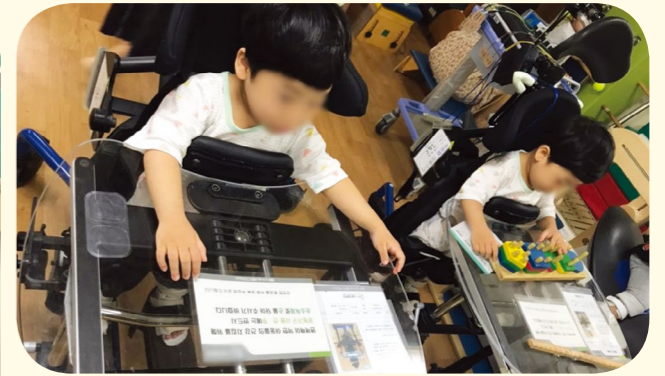
태어나자마자 뇌 병변 진단을 받은 쌍둥이들

조산으로 세상에 빨리 나온 민준이와 하준이는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래보다 근육 발달이 늦고 마비증상이 있어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찬 형편에 두 아이의 재활치료비는 너무도 큰 부담이었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후원자분들이 쌍둥이에게 꼭 필요한 재활 보조기구 구매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었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쌍둥이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비와 함께 재활기구 구입비를 전해주었으며, 더불어 쌍둥이와 같이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 가정 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보여준 첫 번째 기적

민준이와 하준이를 위한 모금을 계획할 당시만 해도 쌍둥이들의 다리 관절이 굳고 발 변형 때문에 스스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방 기립기'라는 재활기구를 구입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이 많은 분의 응원에 힘을 얻은 것인지, 쌍둥이의 가족들과 재활치료 선생님들의 노력이 전해진 것인지, 후원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쌍둥이들은 스스로 제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쌍둥이에게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다리를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쌍둥이들이 언제든지 집에서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동 하지 운동기'라는 재활기구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후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 매번 재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시기에도 쌍둥이들은 꾸준히 다리 근력을 키우는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꼼지락 꼼지락, 재활 치료를 통해 소근육도 잘 발달하고 있어요

쌍둥이들은 다리뿐 아니라 손과 팔에도 마비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간다거나, 작은 물건을 잡는 등 세밀한 동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쌍둥이들은 대소근육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에 거부감이 없어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치료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소근육

발달에 있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쌍둥이의 한 걸음 한걸음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쌍둥이들은 이제 스스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열심히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며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민준이, 하준이와 같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꽃 피울 수 있는 기적을 눈앞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의료비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주세요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 주세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 주세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급격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 취약계층, 장애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사회 소외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지원비, 교육비 총 5개 항목 중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인 만큼 최대 5개 항목(5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월부터 전국단위로 매월 대상자를 모집, 서류심사와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6월까지 총 24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폼페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가 있는 16살 준서(가명)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소모품이 떨어져 가던 중,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아 경관 급식* 영양식품(뉴케어), 멸균면봉, 수액 연결줄, 라텍스 카테터 등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경관식을 하는 준서에게 밥을 먹일 때마다 줄어드는 뉴케어틀 보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지원금 덕분에 식품을 충분히 구매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석션이나 의료적 처치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이 방안에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저희 가정은 준서를 24시간 곁에서 돌봐야 하기에 일도 하지 못하고 정부지원금이 아니면 생활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매달 일하면서 받는 평범한 월급 금액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의료비 덕분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입차 비용, 재활치료 비용 등 다른 고정지출도 많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을 구매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준서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 받은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수급비만으로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준서네 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여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클 아동복지팀 서정기



▲ 지원금으로 구매한 뉴케어로 경관식을 하는 준서

*폼페병 : 4만 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질환. 당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망가져 당이 온몸의 근육에 쌓이면서 서서히 근육을 손상 시키며 심장이나 호흡기 근육까지 영향을 줌.

*경관 급식 : 목구멍이나 쿨구멍으로 가는다란 고무관을 넣어 묽은 음식을 소화 기관으로 바로 흘려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일. 입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방법

탄자니아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홀트드림센터 한부모 여성 가장 기술교육 & 아동 보건교육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탄자니아 슬럼가의 한부모 여성 가장 평균 교육수준은 초등교육 이수 정도로 문해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직업학교는 높은 학비로 문턱이 매우 높고 일자리도 부족하다 보니 한부모 여성 가장 대부분 주거지 인근에서 소자본으로 사업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는 한부모 여성 가장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탄자니아 전통 염색 가공기법 '바틱' 기술교육과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탄자니아는 기성품으로 되어있는 옷보다는 천을 구입하고 봉제공에게 맡겨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바틱'은 다양하고 독특한 패턴과 색감으로 제작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탄자니아 엄마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바틱 염색 기술을 익히고, 교육 이후에도 더 좋은 품질의 바틱 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돈을 모아 재료를 사고 연습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확장과 판로개척을 위해 '디지털 마케팅' 강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탄자니아 인터넷 보급률은 50%(2021, 탄자니아 통신청)로 이는 아프리카 평균인 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빠른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SNS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탄자니아 엄마들은 핸드폰 구입과 인터넷 이용료 부담으로 25%만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부터 SNS를 통한 상거래 방법들이 생소하고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다루어보고 싶었던 스마트폰을 활용해보고 사업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배워보는데 모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바틱 제품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제 능력이 한 뼘 더 강화되었음을 느껴요.”



▲ 안보건 교육을 받는 탄자니아 홀트드림센터



▲ 디지털마케팅 교육을 받는 모습

생애 첫 시력검사를 시행한 탄자니아 아동들

지난 3월, 홀트드림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에서 아이들의 눈 건강 교육을 위해 방문한 것인데요. 탄자니아는 보건 시스템이 열악하여 학교 단위의 기초 보건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 내 보건실이 없어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생애 처음으로 시력을 측정하고 비전케어 소속 전문 간호사의 지도로 눈 보건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화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육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눈 건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측정하고 문제가 있는 아동은 병원진료를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탄자니아 현지 전문기관, 정부 기관, 지역커뮤니티와 협력을 지속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향기로운 응원, 맘스커피

미혼한부모 바리스타 교육지원사업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한부모를 위해 작업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유공방 '가치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토대로 물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플라마켓도 진행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거나 베이킹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한부모를 위해 '스킨푸드'의 지원을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바리스타 교육지원사업 '맘스커피'를 진행합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분, 평소에 커피에 관심이 많았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배우기 어려웠던 분, 지금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미혼한부모들이 맘스커피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정된 미혼한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바리스타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며, 교통비와 아이돌봄비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킨푸드의 응원메시지

“건강한 푸드로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스킨푸드의 취지에 맞게 좋은 원두를 원료로 커피 스크립 제품을 만들고 판매 수익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었는데요. 이번 '맘스커피'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따스한 손길을 더 할 수 있도록 스킨푸드가 함께하겠습니다.”



'맘스커피'가 미혼한부모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베이킹 분야와 관련하여 취업과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천세은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개선

2013년에 설립된 미앤코리아(Me&Korea)는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입양인들과 입양가족들의 후원금으로 매년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총 1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책상과 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 모두 보호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생계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가구가 없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미앤코리아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각자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사하면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없어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많이 불편했는데 가구지원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덕분에 이제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새로운 시작에 새 책상과 의자를 선물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자격증 공부나 노트북을 할 때 책상이 없어 식탁을 이용했는데, 이번 지원을 받게 되어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지원을 통해 10명의 청년은 물품뿐 아니라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마음의 안정과 여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준 미앤코리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 박소현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갯짓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6월, 시설청소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보호종료 후 순조롭게 자립할 수 있도록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사업을 통해 매년 기수별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2년간 진로·정서·경제적으로 통합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함께한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의 누적후원금이 올



해 10억 원을 달성하며, 지금까지 총 165명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특히 이번 5기부터는 인원을 3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또한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5기 발대식에는 시설청소년(멘티)과 그들의 정서적 지지를 도와줄 멘토, 진행을 맡은 윤택 홍보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가자 헤어비스,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 강도현MC를 명예 멘토로 위촉하고, 파랑새 5기로 활동할 멘티와 멘토의 증서 수여가 있었습니다.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5기 발대식

일시 2022.6.11.(토) 15:00 | 주최 **이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 **HYUNDAI**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 장소 홀트아동복지회 강당

5기 멘티는 “시설에서 매년 파랑새 2,3,4기로 활동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자립에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에 지원하게 되었다. 선배들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퇴소하는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8년 파랑새 1기 멘티에서 올해 파랑새 5기 멘토가 된 자립준비청년은 “파랑새를 통해 너무 좋은 멘토 선생님들과 멘티 친구들을 만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고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5기 멘토를 지원하게 되었고, 앞으로 2년 동안 멘티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멘티들이 저처럼 파랑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활동 의지를 전해주었습니다.



▲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5기 멘티



▲ 파랑새 멘토들의 축하 공연



윤택 홍보대사는 “사업 초기 1기 대상자였던 시설청소년 멘티가 올해 5기 멘토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사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 앞으로 더 많은 시설청소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후 명예멘토 강도현MC의 진행으로 멘토와 멘티가 처음 만나 서로 소개하고, 함께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발대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비상을 위해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한 파랑새 5기 멘티와 멘토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레는 꿈을 향한 도약과 도전!

자립준비청년 교육지원사업 '드림 플러스(Dream+)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고 두렵기 마련이죠.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강제 퇴소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자립하는 청년의 수는 약 2,500명. 그동안 보호아동 개개인의 자립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회에 떠밀리라는 지적이 이어왔는데요. 6월 22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이 원하면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한 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등록금, 주거비, 교내·교외 활동비, 교재·교구 구입비, 자격등 취득비 등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합니다. 지난 3월, 설레는 새 학기와 함께 시작한 드림 플러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축하해”

“주짓수라는 운동 특성상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경험을 쌓아야 실력이 느는데도, 3번의 경기에 참가하여 금·은 동메달 하나씩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합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지원금을 통해 시합에 좀 더 자주 참가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메달을 하나하나 목에 걸 때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달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외 활동비 지원 사례

“일하러 대학교에 합격하며 등록금이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이론·실기 역량을 쌓기 위해 대학교 입학에 간절히 바랐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등록금 문제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드림 플러스 사업 덕분에 큰 힘을 얻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

- 등록금 지원 사례



“야기를 잘 다루고 싶었지만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야기가 없었어요.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받아 배우고 싶었던 야기를 조금씩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내 동기와 선·후배를 만나 교류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 교내 활동비 지원 사례



“큰 부담이었던 기숙사비를 지원받아 걱정 없이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으로 간호학과 전공 관련 자격증(BLS)도 취득하고, 이력서에 넣을 취업 사진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집을 구매하여 수월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거비, 취업준비 비용 지원 사례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힘찬 도약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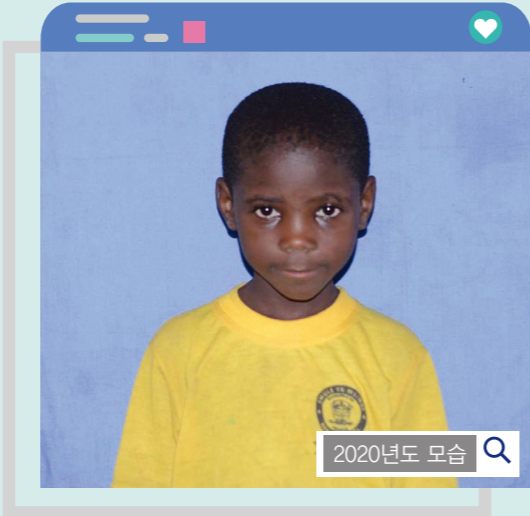
두근두근, 결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이들

국내·해외아동결연 '향기나는 결연, 허브'

일 년에 한 번씩 해외로부터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외결연아동 성장보고서*를 통해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과 해외사업장(홀트드림센터)으로부터 받은 사랑 덕분에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설레는 표정도 엿볼 수 있는데요.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쑥쑥 성장한 결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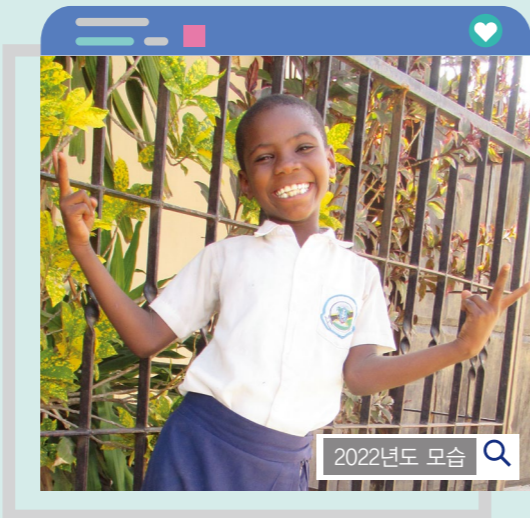
행복은 가까이 있어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지만 탄자니아의 레베카 알렉스(Rebeka Alex)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홀트드림센터 덕분에 지금은 공부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있는데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생활이 가장 소중하다는 알렉스. 무엇을 하든 “잘하고 있어!”라고 외치며 스스로 믿어주며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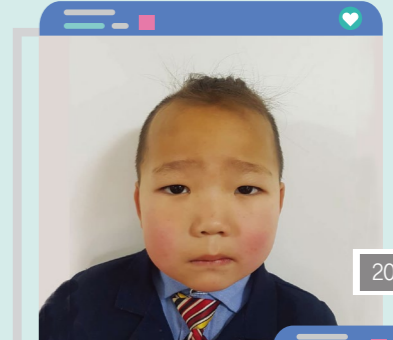
“한국어와 태권도 수업을 가장 좋아해요. 언젠가는 저를 후원해주신 분께 열심히 배운 태권도를 보여드리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2022년도 모습 🔍

* 성장보고서 : '향기나는 결연, 허브' 연간 서비스 중 하나로 홀트드림센터 선생님이 아동과 일대일로 상담 후 번역하여 후원자님께 전달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오프라인 상담에 한계가 있어, 하루마다 한 선생님 당 10명 내외의 아동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서비스에는 연례서신, 후원금 사용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있으며, 상시 서비스로는 편지 및 선물금 서신교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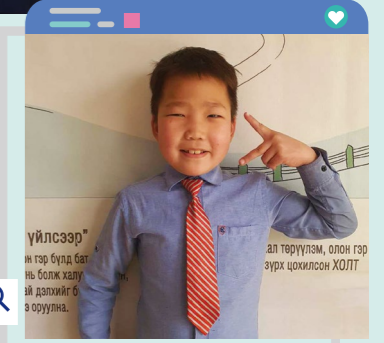
“가정상황이 좋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주변의 여러 도움으로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경찰의 꿈을 이룰 거예요.”



2019년도 모습 🔍

저에게 배움은 소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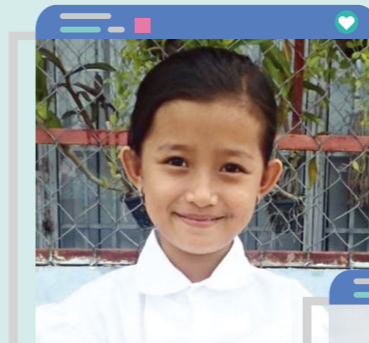
몽골의 몽흐증(Munkhjin)은 홀트드림센터에서 진행되는 요리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출근하시면 늦은 시간에 귀가해서 그동안 동생들과 함께 게르(몽골 전통집)에서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요. 홀트드림센터에서 혼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알려주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몽흐증에게 꼭 필요하고 감사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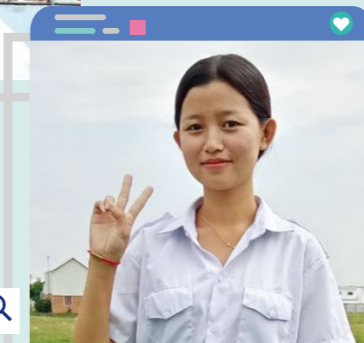
2022년도 모습 🔍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7남매 중 셋째로, 4명의 동생을 돌보는 캄보디아의 리 속린(Ly Sokleng)은 홀트드림센터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며 승무원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모습 🔍



2022년도 모습 🔍

“후원자님께 생일선물로 편지와 선물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께 편지와 선물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슬프거나 우울할 때 편지를 보면 기분이 금방 풀려요. 후원자님은 저에게 든든한 조력자랍니다. 항상 제 편에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결연을 통해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아이들. 처음에는 학교 문 뒤로 숨으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홀트드림센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수업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경직되었던 얼굴에서 이제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멋진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합니다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가장 먼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일까요? 아기에게 먹일 분유, 24시간 필요한 기저귀 같은 기초 양육 물품이 떠오를 거예요. 미혼한부모가 출산 직후 감당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양육 물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자복지보호시설 입소 대신 가정에서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한부모는 도움의 손길 없이 24시간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하고,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합니다.

2014년부터 KB손해보험과 홀트아동복지회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하고자 친환경 초기 양육 물품을 가득 담은 '365베이비케어키트'를 6개월간 미혼한부모 가정의 문 앞에 보내드리는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년간 2,583개의 '365베이비케어키트'가 각 가정에 전달되어 미혼한부모의 수고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출시해 아이들의 발달장애 진단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만큼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특별한 기업인데요, 김기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하여 김성은 홍보대사와 함께 365베이비케어키트 물품을 담으며 미혼한부모가족을 위한 응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응원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올해에는 특별히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6년에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지원받아 아이를 잘 양육하고 지금은 교육 강사로 자립한 엄마의 감사 영상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을 때 아기용품이라고는 산부인과에서 받은 젖병 2개, 기저귀 조금, 배냇저고리 1개가 전부였습니다.

365 베이비케어키트를 지원받게 되어 육아용품이 가득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상자가 도착했는데 하나도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때의 따뜻한 응원을 떠올리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KB 손해보험

미혼한부모가정의 아이를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함께 키우고 응원하니, 미혼한부모도 함께 성장해가며 자립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KB손해보험과 함께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현주

찰칵! 사진에 담아내는 소중한 추억

미혼한부모가정 사진촬영 프로그램 'mom(맘)편한 가족앨범'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 행복했던 시간이 떠오르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가정이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캐논코리아)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87가정이 참여하여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진행된 가족사진 촬영은 전문 업체와 협업으로 대상자의 거주지와 일정이 고려되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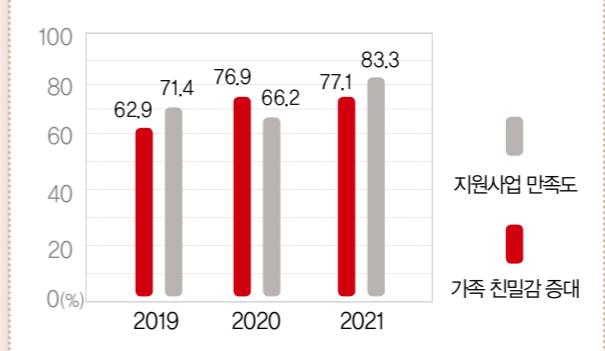


“가족사진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촬영 당일까지 아이와 함께 기대되는 마음으로 웃고 고르고, 소품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촬영하는 시간 동안 아이와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 성장 과정의 한 장면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예쁘게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해주셔서 어우러진 공간과 나무와 풀잎을 좋아하는 아기에겐 자연을 즐기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앨범과 액자를 집안 곳곳에 두었는데, 아기도 자기엄마를 아는지 액자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요.”



2019~2021 대상자 만족도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미혼한부모가정이 일상의 순간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캐논 인스픽 S2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와 인화지를 선물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가정이 행복한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캐논코리아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이어가는 '선한 대물림'

탐리더스 임은주 위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죠. 무엇을 비추든 자녀는 그것을 보고 따라 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만 비추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나눔'이란 거울을 비춰 부모의 길을 자녀가 이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눔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탐리더스* 임은주 위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보고 자란 것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뿐이에요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임은주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은주 위원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08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 산하기관인 홀트수영복지관을 통해 나눔을 시작하였는데요. 2016년에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탐리더스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19년부터 홀트패밀리샵*도 함께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 임은주 위원(이하 은) | 어린 시절 경남 의령에 사시던 외할머니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밥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동네에 노숙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요일마다 와서 밥을 먹고 심지어 가족들 먹이려고 챙겨가기도 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속옷을 사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동네에 마주치는 모든 분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 드리며 함께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에게 나눔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 임유리 학생(이하 유) | 제가 본 엄마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시구요. 제가 자랄수록 엄마가 한결같이 후원하시는 모습이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거나 넘쳐서 나누는 게 아니다.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것이고, 1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깊게 새기며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홀트패밀리샵 현판과 함께
2 무료 진료봉사 모습

* 탐리더스 :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함께 품고 키우고자 2010년에 결성되어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고액 후원자 모임
* 홀트패밀리샵 :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중소기업인 나눔 실천 캠페인



우리 가족은 '나눔'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평소 탐리더스와 홀트패밀리샵으로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던 임은주 위원은 2020년 병원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얻은 수익금 3천만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와 홀트수영복지관에 특별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유리 학생은 학기 중에 받은 장학금을 모아 홀트수영복지관에 약 2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 유 | 청소년 때는 자원봉사활동만 하다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저의 노력으로 장학금을 받아 기분이 좋았어요. 당시에 어머니가 이걸 온전히 저의 돈이라고 하시면서 기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나눔 실천을 자연스럽게 해오신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저도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구요.

홀트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 유 | 중학교 1학년 때 홀트수영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 스스로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려운 형편의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나의 존재와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보고 '홀트가 키워준 딸'이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 은 | 사춘기 시절 시한폭탄 같은 딸을 잡아 준 것은 홀트였어요. 방황하며 힘들어했던 딸이 홀트를 만나면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후원금의 사용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던 복지사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까지 홀트가 저의 나눔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눔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시니 저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경쟁이 반복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더 잘해내는 것,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다양한 시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머니처럼 주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 유 | 누군가는 간절하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에 제가 힘을 쏟고 싶습니다. 홀트에서 그 다리를 놓아주신다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은 | 나눔은 이제 저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제가 이 자리까지 와있는 것도 혼자만의 힘이 아닌 주변의 여러 도움과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으로 다른 누군가도 그 행운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유재진

봄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홍보대사 위촉

5월 17일, 봄슬레이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강한 선수가 우리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시설 보호종료 경험이 있는 강한 홍보대사는 최근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노는브로 2'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어려움에 대해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명예멘토로 위촉되어 스포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시설청소년

년의 진로 멘토링과 시설 퇴소 이후의 생활에 대해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강한 홍보대사는 위촉식에서 " 그동안 명예멘토로 활동하며 나와 같은 경험을 한 파랑새 친구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서 적극 활동하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부

현대홈쇼핑,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후원



4월 18일, 현대홈쇼핑이 '고양시장컵 제27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13년째 후원을 지속하며 장애인스포츠 육성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홀트일산요양원에 코호트 격리 기금 후원

중증장애인시설 홀트일산요양원의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어려움을 돕고자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교회에서 75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방역용 약제, 레벨D 방호복, 체온계 등의 필수 방역 물품을 구입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후원회에서는 1천만 원을 후원하여 원내 확진 이용인의 안전과 코호트격리 해제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건강을 되찾은 일산요양원 이용인과 종사자들은 소중한 일상을 맞이하였습니다.

㈜한신기전 김찬규 전무이사, 탐리더스 위원 위촉



1982년부터 40년간 후원을 지속해 온 김찬규 위원이 우리회 객역후원자 모임인 탐리더스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찬규 위원은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지원사업 기금 외에도 장애인과 미혼한부모를 위한 후원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탐리더스는 현재 31명의 위원이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수 영탁, 이슬로몬, BTS 진, 이병찬 팬들의 선한 영향력



스타의 이름으로 팬들이 아이돌차트에 100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위기가정 아동의 생계, 의료, 주거, 심리, 교육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스타 생일 기념 '특별한 후원' 진행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들이 6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하여 616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4차례 후원을 진행하였으며 "나눔의 방"이라는 팬클럽 이름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하겠다며 후원 의지를 전했습니다. 배우 이민호 팬클럽 '디자이너사이드 이민호 갤러리' 회원들은 6월 22일 이민호의 생일을 맞이하여 약 322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생일기념후원을 통해 심장병 아동 의료지원, 입양대기아동 유지지원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요트승선 체험



5월 5일, (주)삼주다이아몬드베이에서 요트승선

체험권을 제공받아 입양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가족단위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입양가족과 아동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지부

한국수자원공사, 입양가정·미혼한부모가정에 야구관람 지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원스포츠타이'에 지역 내 입양가정·한부모가정 100명을 초청하여 야구관람권, 식음료, 기념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마련된 후원금으로, 가족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제17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시상식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대면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문학제에는 전국의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 시 작품 총 459편이 출품되어 28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대상 작품 'K-감기약, 갱신기'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세계 요리 대회에 출전해 한국의 음식을 선보인다는 내용으로 팻방 '고양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발달축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발달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달축제는 '발달장애인이 날마다 성장하는 축제'로 매년 진행되는 지역축제입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은 성인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홀트강동대학' 학생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OX 퀴즈, 포토존 운영, 바리스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커피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기념 '꿈을 PIZZA'

2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꿈을 PIZZA' 모금 사업을 통해 총 2,157,3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총 111세대에 피자 와 음료를 전달하였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30주년 기념행사



30년 동안 복지관과 함께해 준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육구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기념품과 직접 만든 간식, 경품권을 증정하였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하하축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존', '나만의 키링, 화분, 부채를 만들어보는 '만들기 체험존',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존'을 운영하며 아동이 마음껏 즐기며 뛰어노는 어린이날을 선물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 소외계층 생활미디어교육 'TM라이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22년 신청사업에 선정되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미디어 교육 'TM라이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선발하여 멘토 정기모임, 1:1 미디어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지역 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놀이탐험대와 함께하는 '오월은 우리들 세상'



5월 1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달서구청의 지원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본리어린이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운동회, 가족 둘레길

걷기활동, 신나는 체험부스 활동,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신나는 놀이한마당이었습니다.

아침들

한부모가족의 날 '슈퍼맘' 시상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미혼한부모를 시상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종 빛과소공교회, (주)남영냉면 설비 현대식 대표, 유튜브 김준태(소핑수다)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전클로버

어버이날 맞이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가족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원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 가족 아동 장학금 전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저소득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와 꿈을 응원하기 위해 '꿈과 희망지원 장학금과 '향기나는 결연, 허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다문화 가족 자녀 25명에게 총 3,6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나의 특별한 날을 1955 **너에게 선물할게** 1012



특별한 후원이란? 문의: 02-331-7071
응원하는 스타의 생일이나 아이 첫돌, 결혼, 승진 등 나만의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

희망은 나눌수록 자랍니다

국내후원

홀트사업후원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 지원

아동청소년후원

입양대기아동 양육,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통합지원

한부모가족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주거 안정, 심리정서, 인식 개선, 자립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후원

보호, 의료, 심리상담, 특수교육,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자립 지원

해외후원

해외사업후원

국민촌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후원

결연후원

국내·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는 후원

- 후원상담 · 문의 02-331-7073~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 패밀리#

홀트패밀리#이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중소기업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 병원, 카페 등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신은 나눔 가족입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여
금융바우처 받기!

2022 IBK 금융바우처

통장개설 시 금융바우처 1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금융바우처는 홀트아동복지회와 IBK기업은행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함께 돕는 캠페인입니다.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바우처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7세 이하)

청소년 바우처

2004년~2015년
출생한 청소년(8세~19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3179호(2022.06.21) 게시기한 : 2022.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